

에이피알, 美 매출 250% 성장 앞세워 K-뷰티테크 확장

김병훈 대표, BoF 포럼 첫 연사
1분기 해외매출 5281억원 기록
해외 비중 89%로 글로벌 확대

美 타겟 입점으로 현지 공략 강화
부스터 프로 X2로 홈뷰티 고도화
미용의료기기까지 사업영역 확장



지난 24~26일(현지 시간) 열린 '더 비즈니스 오브 뷰티 글로벌 포럼 2026'의 한 세션에서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가 'K뷰티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피알

에이피알이 기술과 데이터를 갖춘 'K뷰티테크'의 해외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뷰티 표준화에 나선다. 2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2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나 파 벨리의 스탠리 랜치에서 개최된 '더 비즈니스 오브 뷰티 글로벌 포럼 2026'에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가 참가했다. 김 대표는 한국 뷰티 기업 대표가 연사로 초청된 첫 사례다.

이 포럼은 매년 글로벌 패션·뷰티 전문 미디어 '비즈니스 오브 패션(BoF)'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전 세계 유력 뷰티 기업

경영진, 투자자 등 150여 명의 핵심 리더들이 모인다.

이번 행사 첫날 오후에 열린 피아이어사이드 첫 세션에서 김 대표는 'K-뷰티 재도약의 비결'을 주제로 한 대담을 가졌다. 김 대표는 에이피알 창업부터 K뷰티로 이뤄낸 혁신 과정을 공유했다.

김 대표는 "K뷰티가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했다"고 강조하며 "과거 독특

한 제형, 성분 등 '신선함'에 기인했다면 현재는 과학과 기술을 결합한 영역에서 K뷰티가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압도적인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며 세계적 무대에서 K뷰티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분기만 살펴봐도, 에이피알은 글로벌 전역에서 폭발적인 매출을 올렸다. 해당 매출은 59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커져 분기 최

대 매출이다. 이중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5281억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서 89%로 확대됐다.

지역별 매출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가 나타난 곳은 단연 '미국'이다. 올해 1분기 미국에서 거둔 매출은 전년 동기 708억원에서 250.8% 증가해 2485억원이다. 미국 내 온라인 채널에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 대형 오프라인 매장 '타겟' 등에 입점한 성과다.

에이피알은 이처럼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 등을 선보인다. 올해부터는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X2' 등을 출시하며 홈뷰티 시장에서 제품 고도화 전략을 펼친다.

부스터 프로 X2의 경우 에너지 전달력과 화장품 유효 성분 흡수율을 개선한 차세대 제품이다. 기존 메디큐브 제품과 병행 사용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향후 미래 키워드로 '통제비티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최상의 피부 상태를 구현하는 동시에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피부 자신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과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용의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오는 하반기 국내에서 미용 의료기기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며 중장기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기반 디바이스(EBD) 의료기기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현재 관련 전임상, 임상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에이피알의 글로벌 성장은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라 뷰티테크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뷰티테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뷰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AI 신약개발로 성장동력 강화

바이오USA서 180건 이상 미팅
ADC·다중항체 협력 기회 모색
AI 기반 타겟 발굴 역량 소개



셀트리온 바이오USA 부스 모습.

셀트리온이 지난 22~25일(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 행사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참가해 AI 기반 신약 개발 역량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적극 확대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17년 연속 바이오USA에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 경쟁력, 사업 비전을 알리는 역할에 주력해 왔다.

총 니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테크와 180건이 넘는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며 사업 분야 전반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참가해 온 바이오USA 행사 중 가장 많은 미팅 숫자다. 특히 핵심 미래 동력인 항체약물결합체(ADC) 및 다중항체(MsAb) 신약 분야

실무자들이 직접 행사에 참가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셀트리온의 신약 기술력과 경쟁력을 피력하고, 폭넓은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올해 '바이오USA'에서는 셀트리온의 AI 기술 활용 성과와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도 집중했다. 특히, 셀트리온에서 주력하고 있는 ▲AI 기반 신약 타겟 발굴 및 포트폴리오 확장 ▲차세대 다중항체 설계 기술 ▲개발 가능성 평가 기술 ▲

데이터 기반 연구 플랫폼 등에 큰 관심이 모아져 해당 영역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부장 분야에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품 생산 효율화와 기술력 강화를 이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행사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과의 협의를 지속해 상호 협력 방안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 바이오USA에서는 2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부스를 방문해 셀트리온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위상을 실감케 했다"며 "특히, 기존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넘어 ADC·다중항체 등 신약 개발 분야 및 AI 기반 기술력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행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해 낸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 그룹 등에서 큰 관심을 나타낸 차세대 성장 동력 역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운동한 회장 "이순신 경영, 기업이 필수 덕목"

(콜마그룹)

네 번째 역사 경영 에세이 출간
콜마 성장 이끈 경영철학 집대성
유비무환·경청 리더십 가치 조명



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건강 기능식품, 신약을 내놓기까지 콜마그룹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이순신 정신이 뒷받침됐다.

운동한 콜마그룹 회장(사진)이 창업 36년 만에 한국콜마를 대기업집단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이순신 경영법'을 제시하며 이를 학술적으로 집대성했다. 운동한 회장은 실제 경영 현장에서 체득하고 적용해 온 총무공의 리더십을 정리한 네 번째 역사 경영 에세이 '이순신의 위대한 경영'을 출간했다.

콜마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윤 회장과 그룹이 본받아 온 총무공 철학을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회장은 이순신 장군을 탁월한 전술·전략가이자 자급자족을 이뤄낸 최고 경영자로 분석한다. 임금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전함을 건조하고 군량미와 대포, 화약까지 직접 조달한 점을 집중 조명해 왔다.

특히 윤 회장은 관옥선을 개조해 거북선을 창제한 이순신 장군의 혁신을 한국 콜마의 연구개발(R&D) 중심 성장에 접목했다. 윤 회장은 1990년 국내 최초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체계를 도입

또 윤 회장은 이순신의 '유비무환 정신'과 장졸부터 어부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경청의 리더십'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이어가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윤 회장은 이순신 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7년 비영리법인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했다. 중소·중견 기업 임직원을 위한 이순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간 1000명이 넘는 전문 경영 인력을 양성했다.

윤 회장은 학술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19년 '80세 현역 정경 장군', 2022년 '조선의 지켜낸 어머니' 등을 집필했고 2023년 '이충무공전서' 현대어 번역 및 출간을 지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이순신학 1호 박사'이기도 하다. 2024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순신학과에서 '고하도·고금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이순신의 승리 전략 연구' 박사 논문을 냈다.

/이청하 기자

제약바이오협회, AI 실무교육 확대

8월 25~26일 협회서 실습과정 개최
30명 소수정예 팀 프로젝트로 진행

템 기획부터 가동, CSV 문서화와 검증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수강대상은 QA, CSV/DI, QC, 생산, 공무, IT, 연구소 등 제약바이오 분야 실무자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자에게 적합하다. 코딩 경험은 필요하지 않으며 GMP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8월 12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강의와 실습은 DI 및 CSV 전문기업인 아이엔씨피의 김정민 대표와 캡코연구소의 이태원 대표가 맡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AI 기반 시스템 구축부터 CSV 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화·검증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제약 업계에 요구되는 데이터 완전성과 전산 관리 역량을 효과적으로 다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CJ바이오사이언스, 정밀영양 플랫폼 공개

KMB 학술대회서 통합 플랫폼 기술 발표

준으로 모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주기 통합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4~26일 열린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KMB) 학술대회에서 장내 미생물 기반 정밀 영양(PrecisionNutrition) 분야의 혁신적인 통합 플랫폼 기술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히 장내 미생물 구성을 읽고 분석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개인의 장내 생태계를 정밀하게 이해하고 특정 물질이 실제 장내에서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지 연구실 내에서 높은 수

이를 위해 CJ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정밀 분석 플랫폼인 'Ez-Mx(이지엠)'을 활용해 한국인 정상인의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분석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대비 약 3배 많은 종(Species) 수준의 미생물 동정이 가능한 이 기술을 통해, 연구진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유형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세분화하고 개인별 장내 환경의 차이를 정밀하게 해석해냈다.

/이세경 기자